

“일어나서 함께 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정기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성황리에 개최



GMI 세계선교대회 개최예배에서 한기홍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주연합회로 시작돼 8년 전 분 정기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사)에서 19일~22일까지 열렸다. 립한 국제총회는 현재 미주와 유 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란 주제 1989년 예정 보수합동 축의 미 럽, 한국 등지에 노회를 두고 있

으며 중남미, 중국, 아시아, 구소련, 아프리카 등지에서 선교하고 있다.

이 교단 소속 해외선교부인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총재 김광신 목사)는 74개국에서 307명의 파송선교사, 213명의 협력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다.

19일 저녁 선교대회 개최예배에는 700여 명이 참석해 선교의 비전을 불태웠다. 선교사들이 각국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면서 예배가 시작됐고 한기홍 목사가 환영사, 김광신 목사(GMI 총재)가 설교를 전했고 안동주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성찬식은 이서 목사(총회장)가 집례했다. 개최예배 중에는 GMI의 35년 선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 상영돼 큰 감동을 주었다.

선교대회 동안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컴미션 이재환 선교사, SON미니스트리 김정환 선교사가 특강을 전하며 예배, 선교보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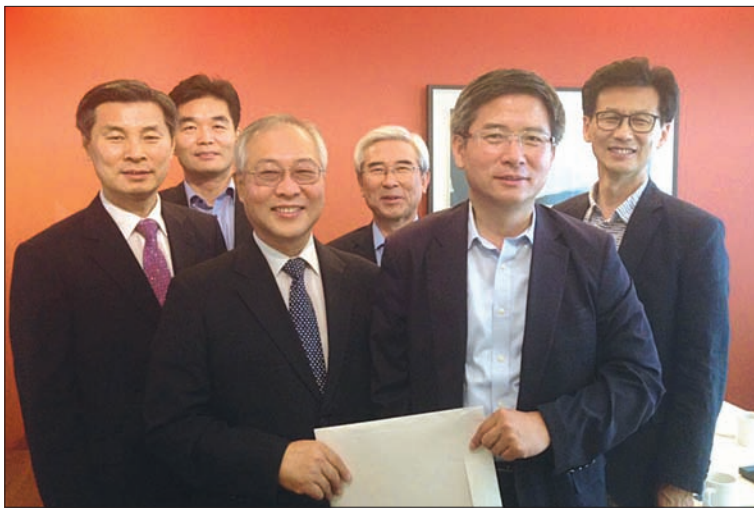
총회는 선교대회 마지막날인 22일 목요일에 열린다. 국제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2년이며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없다. 증경총회장이기도 한 한기홍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안건이 주요한 과제로 상정될 것이라 언급했다.

총회 후 목사안수식에서는 9명이 임직한다. 총회장인 이서 목사는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헌신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기자

“미주장신대에 1천2백만 원 기금 전달”

한국 장신대 84기 동기들...신학대학교 돕기 위해 함께 뜻 모아



조재호 제84기 동기회장(고척교회 담임, 사진 앞줄 왼쪽)이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앞줄 오른쪽)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제84기 동기회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1천2백만 원을 후원했다. 장신대 제84기 동기회는 흠뻑 밭데이 행사를 준비하며 이 대학 동문들을 중심으로 행사비와 모

교 발전기금 2억7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 기금 중 1억 원은 모교인 장신대에 전달하고 장신대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의 5개 지방 신학교에 각각 1천만 원씩 전달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주장신대에도 1천2백만 원을 전달한 것이다.

미주장신대는 통합총회 소속 학교는 아니지만, 통합총회와 형제 관계에 있는 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이며 이상명 총장은 장신대 제84기 출신이기도 하다.

제84기 동기회 임원들은 지난 7월 초 서울을 방문한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에게 이 기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기도하는 목회자, 사랑으로 동역하는 목회자”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제10회 목사 안수 및 임직식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최아브라함 목사)가 10일 UCS 대학교 강당에서 임직예배를 드리고 7명의 목회자를 세웠다.

설교를 전한 오병익 목사(남가주엔젤교회 담임·본지 이사장)는 “하나님이 찾는 목회자”(사도행 3:3~10) 제목의 설교에서 “기

도하는 목회자, 사랑으로 동역하는 목회자, 진심으로 섬기며 베푸는 목회자가 되라”고 전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최아브라함 목사가 모든 안수 과정이 총회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살롬장애인선교회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지난 1999년 9월부터 전세계 빈국에 사랑의 휠체어와 각종 의료보조기구를 전달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올해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벌여 부룬디와 중국에 사랑을 나눈다.

이 선교회는 지난 17년간 휠체어 10,553대와 기타 의료보조

기구 43,290점 등 총 53,843점을 34차에 걸쳐 12개국에 선적하여 5만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올해는 휠체어 642대, 알루미늄 목발 550개, 의료용 보행기 100개, 지팡이 1500개 등 3,542점을 선적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컬러프린트/컬러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맞춤형 솔루션/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올림픽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10월 2일 오후 4:00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 장소를 감사하면서
은 교우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에서 보다 더 잘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녀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이민자들의
꿈일 것입니다. 올림픽장로교회는 여러분의 꿈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 지기를 도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장로교회
Olympic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정장수 / 동사무사: 권태산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213) 387-1700 www.olympic-church.org

일셔와 버질 (큰가마식당 뒷편)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리셋예배(청장년)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권태산목사 정장수목사

Map: Wilshire Bl. (Vermont, Virgil, Hoover, Tennis Court, Wishure Park, Metro, Southwestern Law School, Hoover, Tennis Court)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가 목사안수 및 임직식을 드렸다.

“기도하는 목회자, 사랑으로 동역하는 목회자”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제10회 목사 안수 및 임직식

[1면으로부터 계속] 최아브함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식에서는 임직 서약·안수 기도과 성의 작복, 임직위원 일동의 악수례와 최아브라함 목사의 임직 공포와 안수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장권혁 목사의 권면, 김지

현, Mario Galvez 목사의 축사, 최영원 목사의 광고, 임정수 신임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러졌다. 최아브라함 목사는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지니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보다 많은 멕시코 목회자가 세워지니 하나님의 크신 축

복이고 교단의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임직된 목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엄인애, 임정수, Ramon Pinnon Espino, Elda Jimenez, Gerado Martinez, Eljazar Jimenez, Raquel Jimenez. 이인규 기자



한마음선교교회(담임 김경식 목사)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마음선교교회 설립 감사예배 드려”

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캘리포니아 노회소속 한마음선교교회에서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미국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11일 오후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 담임인 김경식 목사는

조이풀교회 부목사로 6년을 섬겼으며, 이 교회는 조이풀교회 후원으로 분리 파송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김경식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리버사이드 주님의기쁨교회 카리스 찬양단의 찬송인도,

조한나 권사(조이풀교회)의 대표기도, 김홍철 목사(산울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페트라대학교 총장이며 조이풀교회 담임인 김정호 목사가 ‘세가지 권면(딤후2: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정호 목사는 설교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은 한마음선교교회의 설립예배의 증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격려사, 조성 목사(군타임스교회 담임) 축사, 조이풀교회 유스그룹 오케스트라의 특별연주, 김철 목사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캘리포니아 노회장이며 새소망교회 담임인 이시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문의: 213-909-3579 *주소: 3000W 6th st, B02, LA, CA 9002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부설 팜스프링스한국학교가 9월 9일 개강했다.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부설 한국학교 개강

팜스프링스한국학교(교장 김규연 집사)가 9일 개강했다. 이 학교는 유대인의 말씀 학습법인 쉘마 교육에 기초해 SQ, EQ, IQ

를 개발하는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다. 동요, 체조, 사자

성어 공부 등 특별활동도 있다. 한국학교가 끝난 후에는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담임 최승목 목사)에서 오후 8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비는 1명은 100달러, 2명은 150달러, 3명은 200달러다. 이 등록비에는 교재, 간식, 크래프트 비용이 포함돼 있다. 종강은 12월 16일이다. *문의: 443-880-2577 *주소: 75589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3 헬비 권 기자



20일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센터에서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이 거행됐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휠체어 1만 대와 의료기구로...전 세계 장애인 5만명 도와

[1면으로부터 계속]대표 박모세 목사는 “이런 놀라운 결과는 첫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둘째로는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 한인사회 내 교회와 단체, 성도들의 헌신 덕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후원금 200불이면 휠체어 1대와 크리치와 같은 기

타 의료보조기구 2세트를 구입해 총 3명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살롬장애인선교회는 20일 이 선교회 센터에서 휠체어 발송식을 거행했으며 25일과 27일 롱비치항을 통해 물품들이 출항하게 됨을 밝혔다. 김준형 기자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가 최근 멕시코 티후아나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나성제일교회 멕시코 단기선교”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가 지난달 5일~6일까지 이틀간 멕시코 티후아나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9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현지 교회 및 가정집을 방문해 페인트 작업을 돕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의 솜사탕 만들기, 복음 전도 집회와 사랑의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문수 목사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다. 어두운 시대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문의: 213-388-7101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헬비 권 기자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나름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9월 18일 주일 남가주벨엘교회에서 열린 본지 후원 음악회에서 시카고권사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울타리선교회에서의 연주회 모습. 지휘자 전성진 목사가 독창하고 있다.

교회 · 교파 달라도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은 한 마음

시카고권사합창단 남가주 연주회

울타리선교회 및 본지 문서선교 후원 위해

시카고권사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4일 동안 남가주 곳곳을 수놓았다. 41명으로 구성된 권사합창단은 섬기는 교회, 교단, 교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 된 연합 정신을 자랑한다. 창단된 지 고작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단숨에 단원 40명을 돌파하고 시카고 교회 연합 부흥회, 통일 컨퍼런스, 최성봉 자선 음악회, 메시아 연주회, 할렐루야 대성회, 중국 선교의 밤 등 각종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남가주 순회 연주회는 합창단이 창단된 후 처음으로 성사된 타 지역 공연이었으며 이번 순회 후 이 합창단은 10월 8일 위스콘신주립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페루, 한국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 중이다.

2015년 3월 창단된 권사합창단은 2016년 4월 10일 창단 연주회를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로 94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그리고 연주회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LA의 흑인 빈민과 노숙자를 섬기는 울타

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에 기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남가주 순회 연주회가 성사됐다.

권사합창단은 LA에 도착한 16일 당일, 선한정지기교회(송병주 목사) 금요예배에서 특송을 부르고 17일 오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평생교육대학에서도 특송을 불렀다. 이 행사 후 곧장 LA로 이동해 울타리선교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권사합창단은 흑인 빈민, 마약 중독자, 전과자, 노숙자들로 구성된 청중 앞에서 감동적인 찬양을 연주해 큰 은혜를 선사했다. 특히 지휘자 전성진 목사가 '주기도'를 독창하는 대목에서는 수많은 참석자가 눈물을 보이는 등 감동이 넘쳤다. 권사합창단은 연주 후 참석자 모두에게 미리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 기간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는 본지 후원 음악회였다. 본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후원 음악회에서 권사합창단은 주기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등 12곡을 열창해 큰 감동을 주었다. 전성진 목사는 "평균 연령 70세에 별명이 흰머리 소녀 합창단"이라고 소개하며 "LA에서



오병의 이사장이 후원 음악회에서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다.

도 나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그러나 전 목사의 소개와는 달리 합창단의 찬양이 한 곡 끝날 때마다 기립 박수가 쏟아지는 등 권사합창단은 유감 없이 실력을 보여주었다.

후원 음악회는 본지 이사장인 오병의 목사가 시무하는 남가주벨엘교회에서 18일 주일 오후에 열렸다. 오병의 목사는 "시카고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의 정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권사합창단을 초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에도 연합과 화해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후원 음악회에서는 남가주벨엘교회의 솔리스트들도 중창으로 은혜를 주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권사합창단은 새들백교회를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사합창단은 본지 후원 음악회 전에는 은혜한인교회 2부, 3부 주일 예배에서 특송을 연주했다.

4일 동안 6번의 무대에 서야 하는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권사합창단은 시간을 내 새들백교회를 탐방했으며 LA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헌팅턴비치를 방문해 남가주의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다를 만끽하는 여유도 누렸다.

한편, 이 합창단의 지휘자 전성진

목사는 예장 고신 측의 존경받는 원로인故 전은상 목사의 장남이며, 한국 교회음악의 거장인故 김두완 박사로부터 배운 제자다. 미국 중서부의 명문 노스웨스턴대학교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아메리칸콘서바토리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부학장을 역임했다. 미국 바하 소사이어티 멤버이며 시카고의 릴릭 오페라의 단원 등으로 주류 무대를 누볐으며 한국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김준형 기자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납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주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PRO-Z Gold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13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열렸다.

“한민족 통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한반도 통일 위해 헌신 마음 가져야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는 18일 웨더럴웨이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한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워싱턴 주 시애틀, 웨더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에 거주하는 8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는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북녘의 지하 교회에서 고통 받는 성도들과 억압 받는 주민들에게 하루

속히 자유가 주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이 하루 속히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했다.

페더럴웨이장로교회의 최병걸 목사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에스더는 황후이기에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에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피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다”며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 역시 대한민국과 북한이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급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

만 한국과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남북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71년 전 광복을 맞이했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무지, 이기심 등의 죄의 회개 기도, 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는 연합 기도,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역사의 주관자에게 기도하고 실천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통일기도와 “안전한 광복인 통일을 보게 하옵소서”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시애틀 김브라이언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2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다 같이 공유하는 세상 장애인 파킹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생명체들은 경쟁을 하며 가장 힘이 센 생명체가 살아남고 번창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서 유일하게 어느정도 제외되는 것이 사람이 지 않나 싶다.

사람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항상 경쟁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의 특징은 그 경쟁속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돈을 힘들게 벌면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다.

세상은 사람들이 모두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의 공간이다. 나만 편하자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이 세상이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남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나의 마음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은혜를 입기도 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의사로서 남들처럼 늦잠을 자고 아침 8시까지 병원으로 출근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새벽 6시면 보험 없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들을 몇 명씩 매일 무료로 봐준다.

이 생활이 필자에게는 단 한 두 시간의 배려 시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큰 질병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생명 치료의 시작이라 생각해 종합병원에서 매일 새벽진료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종종 멀쩡하게 지팡이도 없이 걸어나는 사람이 장애인 파킹 퍼밋을 받겠다고 필자에게 DMV 장애인 진단서를 써달라는 일이 있다.

한달에도 한 두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는 편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필자가 거부를 하며, “불편없이 걸어나시려는 환자분께서 장애인 파킹권에 차를 세우시면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오는 다른 환자분은 세울 곳이 없어서 안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도 힘드니 장애인 퍼밋해줘”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요청을 다시한다.

필자가 절대 안된다고 하면, 다른 의사들은 다 해주는데 뭐 여기는 이렇냐는 등,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 등, 때로는 의사가 어려서 용통성이 없다는 등 화를 내며 다음부터는 필자의 병원에 안 오겠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래서 요즘 필자는 융통성 없는 의사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해들었다.

필자는 이렇게 되물고 싶다. “여러분은 융통성있게 장사 잘 하는 의사를 원하셨던 겁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넓지 않다. 이 한인타운에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 퍼밋을 가지고 몇 개 안되는 장애인 파킹권에 차를 세웠다면, 그것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주차를 못한 그 어떤 실제 장애인이 우리가 아주 가깝게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서로 공유하고 위하는 세상,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더욱 밝은 한인타운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울까 생각해 본다.

“뉴욕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미주8팀, 한국 4팀 참여해...감동과 은혜 가운데 개최



뉴욕기독교방송 CBSN(사장 문석진 목사) 주최로 노숙인과 장애인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가 18일 뉴욕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티토리엄에서 개최됐다.

뉴욕기독교방송 CBSN(사장 문석진 목사) 주최로 노숙인과 장애인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가 18일 뉴욕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티토리엄에서 다양한 이민교회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지역과 시카고지역 등 미주지역 합창단 8팀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4개 합창단이 참여해 총 25곡을 선보였으며, 좌석 2600석을 가득 채웠다.

합창제 공동대회장 김남수 목사는 “주수의 계절, 이번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 기쁨과 소망의 귀중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고 대회를 전했다.

사무총장 문석진 목사는 “마지막에 한 헌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거룩한 일이 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뉴욕교협 이종명 회장과 뉴저지 교협 이의철 회장, 뉴욕목사회 김영환 회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교계 관계자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피터 구 뉴욕시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도 축사를 보내 이민교회의 연합합창제를 축하했다.

[뉴욕 기독교일보]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만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00개 \$320 2017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다양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커스텀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

심방 및 선물용 액자 (병원, 개업, 가정 심방용 말씀액자) \$30

말씀이 기록된 심방용, 선물용 캔버스 16x16:\$30 커스텀제작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8x24, 20x30등 다양함)

각종 사인 전문 실내외 차량용사인 \$15 \$160

TOPMEDIAUSA MEDIA TOTAL SOLUTION

주님미디어 닷컴 junimmedia.com

TOPMEDIAUSA.COM E-mail: topmedia153@gmail.com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저희 탑미디어는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배너 36x120 \$50

완형배너 (스탠드 포함 \$65)

각종 임직패, 감사패 \$50

각종 전도 용품

장단 배경 디자인 및 제작

전도용 시디 / 앨범 제작

디자인+시디봉투1000장 +풀칼라인쇄시디1000장 \$300!!!

전도물티슈

각종 머그컵 / 보온 물병

수건 100개\$400

전도용 시디

책갈피

VBS 및 각종 행사 선물용 티셔츠 풀칼라티셔츠인쇄 \$6.5

주보/ 현금봉투 및 각종 인쇄물

주보1000장+현금봉투1000장 \$300!!! (디자인 무료!!!)

교회로고이름+주소+전화번호 차량용스티커 2개 \$50 !!!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4: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지는 못하고 인간의 뉘새를 풍기는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쫓아 먹이고 밧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했습니다.

1.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 가고 있음을 꾸짖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히 행세하는 권력을 장악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나바나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만 힘써야지 자기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忠誠(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3~5를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잘 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

파 그리고 게바파도 있다보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姿勢)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3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 판단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자신을 두고는 무척 관대합니다. 남의 눈의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깨닫지도, 뺄 생각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행패부리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령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요긴하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주 분노하게 하며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충고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도전해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나를 시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훼방도 하며, 또 지옥에 보내기 위해 수단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 때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

니다.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부터 비판 받을 일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임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끝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기적 사고방식의 틀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영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겉으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셔서 야단치시고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다 밝혀 내십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마

치 자신이 준비한 것인 양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마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설혹 자기가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욱 성숙된 여유 있는 믿음입니다. 목사님을 공개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보다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 드리는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늘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지혜로 예수님 재림 하셔서 심판 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 들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진짜 믿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ed color ?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Office &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364e / C284e / C224e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Mobile Support	USB Print
----------------------------------	----------------------------------	----------------------------------	---------------------------------	---------------------------------	----------------	-----------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 A. 이력서 (사진포함)
-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LA 한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연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전체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대양 육대주에서 쏟아지는 뉴스들로 시계도 월세가 없다. 지진대가 아닌 경주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 사태, 뉴욕 변화기의 폭발물 사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등,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보 홍수 속에서 24시간도 모자란다고 아우성들이다. 그 많은 정보와 뉴스 속에서도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는 묵묵히 굴러가고 있다.

각종 정보와 비법이 오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답이 없는듯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참음성이 없고 불안해 한다.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미지수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아닐까?

불안함은 불신을 낳는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맘에 들지 않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불안하다, 두렵다. 괴롭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미래는 주님의 것이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도 손해되지 않는다. 안심하며 살 수 있다.

가끔 주리소설을 읽다 보면 몇 쪽 읽다가 그 책을 놓고 싶을 때가 있다. 주인공이 너무 힘들어 하고 비참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려서 더 이상 읽지 못한다. 그런데 며칠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다시 그 책을 보고 마지막 결론을 먼저 읽다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 주인공이 주변의 모든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성공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아, 그렇

구나” 하고 다시 그 소설을 처음부터 읽을 때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전체를 알고 나니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책을 열정을 가지고 읽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니 때로는 두렵고 너무 힘들 때가 있다. 우리는 힘든 현실만 바라보니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부분만 아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아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다. 전체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하니,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담대히 인생을 펼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 우리의 전체 생애를 아신다. 세계 역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 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온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시 125:1)

‘의뢰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맡긴다, 접촉시킨다, 붙들어 맨다,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다.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지만 강한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견고한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나의 인생을 맡겨야지 하고 생각만 하면 안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로 되새기지만 해도 안 된다.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받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 밥을 직접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먹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사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비한 양을 주신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렇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평강의 삶, 복된 사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흥의 선봉자들이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인과 노동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의 일에 참여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은 하나님의 율리의 표준이며 창조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노동을 하고 일할 양식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의 복을 누리라는 의미인 것이다. 참된 노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엡 4:7)하는 일을 말한다. 노동에 관한 마키아벨리 이론(Machiavellian theory)에 따르면 “참된 노동이란 인간을 간섭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적응하여 살아가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참된 노동을 통해 보람과 재미를 갖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열심히 옛 새 동안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노동자의 삶으로 그리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노동과 건강과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노동을 위하여 달란트(재능, 직업, 노동, 물질)를 맡겨 주셨다고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이 청지기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칼빈은 노동이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노동은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 되며 복음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트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쌓아 두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메이스터(Jan Meester) 목사는 “노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봉사”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단지 화폐의 단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다, 균형을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말하기를 “직업은 천직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직업(Vo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소명”이라고 한다.

하나님 없는 노동은 비록 땀을 흘리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질 못할 것이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순간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돈이 잘 벌리는 직업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가 좋아하고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할 때 참된 기쁨을 찾게 된다. 우리가 직업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그리고 물질의 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며 열심히 맡겨진 사명 노동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

북한 핵폐기 천만명 서명운동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5일(주) 저녁 5시
주님의 영광 교회
(1801 S. Grand Ave., LA)

강사

이종윤 목사 (국제대표)

간증과 찬양

유명찬양단과 탈북자

**주최
주관**

북한 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남가주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 준비위원회
(한기홍 목사, 한기형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 임태랑 LA평통회장, 김재권 미주총연회장 외)

본부연락처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 www.북핵폐기.com
준비위원장 백종윤 목사 (714.706.2727, jyb0829@hotmail.com)
임영해 간사 (323. 823. 8943, young546is@yahoo.com)



조용기 원로목사 초청성회

날짜: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1958년 전쟁 직후의 황폐함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5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여 세계 역사상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루었고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구를 약 115바퀴 돌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였던 **조용기 목사님**이 설립한 **베데스다대학교의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을 방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남을 귀중한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베데스다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 세부 일정

1부 - 개교 40주년 축하 및 후원의 밤
5:00PM - 6:30PM

(초대받으신 분이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베데스다대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2부 - 축복 부흥 성회(설교: 조용기 목사)
7:30PM - 9:00PM

(다민족 성회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가능합니다.)

주최 : 베데스다대학교





예장 고신 제66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고신 신앙 정체성 확립에 최선”

오는 23일까지 정기총회...배광호 신임 총회장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66회 정기총회가 ‘응답하자! 교회개혁’(열왕기하 18:1~8)을 주제로 20일 개최해 오는 23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진행된다.

첫날 개회예배 후 치러진 임원선거에선 단독후보였던 배광호(동부산노회 남천교회)·김상석(남부산노회 대양교회) 목사·이계열 장로(동서울노회 서울성산교회)가 모두 과반을 득표해 각각 총회장과 목사·장로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바로 이어진 이·취임식에서 직전총회장 신상현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과, 저를 용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무엇보다 리더십과 덕을 겸비한 새 임원들을 세워 주셔서 기대가 크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임 총회장 배광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종에게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하게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개혁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 벤트와 행사보다는 개혁주의적 고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배 신임 총회장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음병원에 대해서 “총회가 복음병원을 짓기 위해 오래 기도하는 등 많은 애를 썼다”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되 좋은 점은 살려서 설립이념대로 선교하는 병원,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으

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상호 협력하면 한다”고 했다.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고신측은 아직 여성에 대한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다뤘으나 부결시켰다. 배 신임 총회장은 “시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교회서도 여성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성경적·시대적으로 더 연구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예장 합신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상호 교류와 교제는 활발하다”며 “신학교 사이의 학점 교류와 교수들의 순환 강의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고려측과의 역사적 통합을 이룬 것과 관련해서 “원래부터 형제였기에 통합 과정에서 서로 많은 배려를 했다”며 “앞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화하며 완전한 통합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총회 현장에서 통합 당시 고려측 총회장이었던 천환 목사 등에 꽃다발을 증정하며 그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신임 부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이번 정기총회가 어느 때보다 편안한 가운데서 진행될 줄 믿는다”며 “모든 이들과 협력해 교단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계열 신임 장로부총회장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뜻깊은 해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며 “화합과 일치로 통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영성목회연구원 제19회 영성목회포럼을 진행했다.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서!”

영목회 제19회 영성목회포럼...영성회복 시간 가져

목회자들의 영성과 목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성공적 매뉴얼을 연구·보급해온 영성목회연구원(SMART, 총재 길자연 목사)가 5~7일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제19회 영성목회포럼을 개최했다.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영성을 회복하고 목회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재인 길자연 목사는 둘째 날 저녁 심령 대부회를 인도했다. “여호와와의 소리”(시 29:1~11)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길 목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소리이며, 소리는 설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신적 요소 전부가 말씀 속에 녹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며 “목회를 하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때가 많지만, 우리는 다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전부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관선 목사가 개강예배, 남태섭·김성근 목사가 새벽예배, 김창근 목사가 폐회예배 설교를 전했다. 또 한천설 교수가 “개혁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주제강연, 이해훈 국회의원과 김자연 목사가 특별강연했다.

또 강재식 목사가 진행을, 이병렬 목사와 김명진 목사가 발제를 맡아 “미래세대 청·소년 목회”를 주제로, 소재열 목사와 황규학 목사가 폐회를 맡아 “장로교의 헌법 원리”를 주제로 폐널토포의했다. 이선이 교수가 사모를 위한 특강도 전했다.

DMZ와 통일전망대를 답사하며 통일기도회도 진행했다. 이대웅 기자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설을 깨닫고, 이단기증을 치료하며, 선교영향을 증진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재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정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용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 365-8880 / F.(213) 365-8802</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말-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말-토) 오전 7: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박영천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헌아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침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부인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말-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섬지기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신, 초 정진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블라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매(Maturing), 뒷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열매가 살아있는 교회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388-29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강산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229-6597 / cmc-12.com / yesuini2@gmail.com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크로스포인트교회 피트 윌슨 목사, ‘탈진’ 사임”



테네시주 내슈빌에 소재한 크로스포인트교회(Cross Point Church) 담임 목사인 피트 윌슨 목사가 최근 탈진(burn out)으로 사임했다.

윌슨은 또 자신이 “교회를 위하고 있다는 확신을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매우 부지런했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한다는 비전 속에서 이를 계속해나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11월 윌슨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의 사임 결정을 알렸다.

윌슨 목사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교회의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비전이 현실화 될 때 비전이 된다. 여러분은 이를 실현해왔고, 우리 앞에 최고의 날이 이르렀다고 믿는다”고 했다.

크로스포인트 웹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에서 윌슨 목사는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지금) 난 괜찮지 않다. 현재 지쳤다. 망가졌고 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윌슨 목사와 그의 아내 브랜디 사모는 지난 2003년 크로스포인트교회를 세웠고, 현재 매주 7,000명이 5개 지역교회와 온라인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는 “빈 상태로 교회를 이끌었다”면서 “우선 순위에 두어야 했던 몇 가지를

이와 관련, 처치리더스닷컴은 “탈진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전했다.

“수단, 기독교인 박해 주장한 목회자 구금”

수단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수단교회 목회자 2명이 정부의 불법 구금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레몬, 야마니(Yamani) 등의 교회 지도자가 정부의 반복된 체포와 석방으로 가족, 교회와 함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하산 목사와 함께 텔탈(Telal) 목사는 무기한 구금 중이다. 수단 법에서 체포 후 45일 후 석방하든지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에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하산(Hassan Taour)과 쿠와(Kuwa Shamal) 목사는 수단에서 일어나는 대량학살과 시민에 대한 살인, 방화, 기독교인 박해 사실을 담은 동영상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오픈도어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수단은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로 기독교인에 대한 살인, 방화, 학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수단 정부는 이슬람 정책을 표방해 남부 지역 기독교인 흑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정부는 80년대와 90년대 음식과 의료혜택, 주거지 등 인간의 기본 수요의 공급을 차단해 누바 고지 인구를 진멸하려 했다. 또 정부는 촌락과 농장을 파괴해 인위적인 기근과 기아를 만들고 대량 학살을 했다. 특히 남수단이 2011년 1월 분리 독립한 이후 남쪽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졌다.

하산 목사는 기소 없이 작년 12월 18일부터 구금돼 있으며, 쿠와 목사는 같은 날 구금됐다 풀려났으나 지난 5월 24일 기소 없이 다시 구금됐다. 두 목사는 남수단 누바(Noba) 고지 출신으로, 수단 내 대부분 기독교인이 누바 고지에 터전을 잡고 있다.

현재 수단 정권 지도자들 대다수는 이슬람 과격주의자이며, 여당인 NCP는 수단 내 이슬람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은 ‘열등시민’으로 분류되며 법률은 시민의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 기독교인에 대한 살인, 방화는 일상이 된 지 오래이며 파괴된 교회 건물을 보는 것도 익숙한 일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카툼(Khartoum)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두 목사가 정보를 조작하고 불온물을 유포하여 남 코르도판(Kordofan) 지역에서 반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내용에 근거해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단에 국제적인 압력을 불러일으키고, 수단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오픈도어는 “수단은 기독교인들과 특히 리더들에 대한 인권이 유린당하는 곳”이라며 “무기한 구금 상태인 하산 목사와 텔탈 목사가 빨리 풀려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무법천지의 수단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행위, 불법과 범죄로 인한 정부반대, 계층 간 반목 조장 등 최소 7개 이상의 죄목을 적용시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비 족은 폭탄테러로 삶의 거처를 잃고, 방치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다”며 “민간인 대상 테러가 종식되고, 수단 정부가 이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강구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수단에서는 하산과 쿠와 목사 외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정부의 압력 아래 놓여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다른 교회의 한 목사가 기소 없이 반 년간 구금됐다 석방됐으며, 아유브(Ayub), 야곱(Yagoub), 나웨이(Naway), 빌레몬(Phi-

강해진 기자

“잘못에 대한 회개는 늦지 않아”

빌리 그레함 목사 칼럼에서 회개 관해 설명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거의 범죄를 회개하는 일은 언제나 늦지 않다.”

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잘못된 길을 버리고 흠친 것들을 다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한 가지 더 있다.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한 것(눅19:8)”이라고 말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18일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 웹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과거의 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레함 목사는 과거에 지은 죄와 관련하여 2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첫째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둘째는 교회 재단에 흠친 돈을 기부하는 것이었다.

한 독자는 “지난 40년 동안 내 고용주(의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매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자와 함께 돈을 갚고 싶는데, 그와 동료도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당신은 더 이상 고용주에게 돈을 갚을 수 없지만 당신의 교회나 의료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에 헌금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해를 끼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성경은 보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신 5:8)고 말씀하신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그레함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좋은 행동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회개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지난 7월에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레함 목사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였고 분명히 수년 동안 수 많은 이들을 속

당시 칼럼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신다면,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였고 분명히 수년 동안 수 많은 이들을 속

강해진 기자



인도 기독교인들.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인도 기독교인, 힌두교인 개종 시도로 공격받아”

기독교 문학적 나눠준다 봉변당해...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

3명의 인도 기독교인이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군중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 심리학자인 프라산트 바트나가르 목사(45)와 2명의 교인들은 마하라슈트라 나비 뭉바이시(市)의 카르가르와 탈로자 지역에서 기독교 문학을 배포하다가 육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트나가르 목사는 차로 근처의 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기독교 팸플릿을 계속 나눠줄 경우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경찰은 일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종교적 격분심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기록했다.

마하라슈트라소수자위원회(Maharashtra Minorities Commission) 아브라함 마타이 전 회장은 타임즈 오브 인

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평화로운 단체를 매우 악하게 공격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들은 총으로 위협을 당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을 수배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3명의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에게 주말 기도회 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트나가르 목사와 함께 공격을 받은 교인들은 사진 쉐지와 그의 아내 마니사였다.

워드오브갯 웹사이트는 “3명의 기독교인이 지난 16일 카르가르 지역에서 기독교 문학을 나눠주다가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심각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힌두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인도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美아브다니 목사, 이슬람은 사탄적 종교”

이슬람 추종자들이 9·11로 기독교인들 공격 시작한 것



아브다니 목사 ©CNN뉴스영상 캡처

무슬림 출신 목회자이자 개종을 이유로 이란 교도소에서 3년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하다 석방된 이란계 미국인 사이드 아브다니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이슬람은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적 종교다”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아브다니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5년 전(9·11 테러) 사건은 전 세계의 형태를 영원히 변화시켰으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과 이슬람 사이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1 테러로 인해 약 3000명의 미국인이 숨졌으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매일 코란과 이슬람의 가르침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다니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과 전 세계를 향해 이슬람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전쟁의 한 복판에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는 지금 모든 이들에게,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며 “대부분 기독교 목회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다니 목사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무슬림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슬람 신앙에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슬림 친구들이여,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예수를 당신의 삶의 구세주요 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아브다니 목사는 여러차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에게 다가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무슬림들이 지하드로 공격해 올 것이라 경고했다. 장소피아 기자

“시리아 알레포 성당 파괴”

휴전 협정 위반 반군 폭격으로...사제 숙소와 게스트룸 파괴돼

시리아 알레포의 가톨릭교회가 휴전 협정을 위반한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시리아의 아랍뉴스통신사는 최근 자유시리아군이 알레포 북쪽 알자지아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사제의 숙소와 게스트룸이 파괴됐다. 미사일은 성모마리아성당의 2층 바닥에 떨어졌다. 성모마리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밀집된 장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 휴전 협정이 맺어진 지 하루동안 약 23차례의 공격이 있었다.

AINA는 교회와 모스크 등 십자군 시대의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일부 장소들 역시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알레포의 이브라힘 알사바흐 목사는 아시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생한 단일 사건이 주민들의 이 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 마을의 인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알사바흐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로켓이나 방화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알레포의 시민들은 분쟁으로 인해 매우 지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제나 교구 목사들이 현장에 없어서 다행히 피해를 면했다. 그러나 건물의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또 “휴전이 시작된 이후, 상대적으로 고요하다. 그러나 교회와 사택을 상대로 한 공격은 평소와 같다. 이러한 공격은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불안정한 기운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5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5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현재 알레포에는 수천 명이 고립돼 있으며, 연료와 음식,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장단체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 구호물자 전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형선교회 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기도회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중교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c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 F.(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드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6:00
토요일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금요일,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배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모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 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 플러싱 지사 [718]928-3333 /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 토론토 지사 [647]686-6000 / 서울 지사 [02]739-0890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가을단풍 비경특선

마감임박!!!

럭셔리 극치!

가을단풍의 전설속으로, 500마일 캐나다 메이플로드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여행 6일 ▶출발확정 10월 5일, 10월 8일 (항공/숙박/입장료 포함) \$949

캐나다 단풍 크루즈 9일 \$1,399 - 크루즈로 단풍까지 즐기는 1석 2조 여행 ▶9/30



몬트리얼 - 세인트로렌스강 퀘벡 - 샬롯타운 - 시드니 (노바스코티아) - 할리팩스 - 바하버 - 보스턴

특선 캐나다 단풍 크루즈

- 1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미국 제 1의 단풍비경 (캔카마루스 단풍로드)
2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의 영원한 단풍의 노스탈지어를 꿈꾸다
3 애디몬데, 주립공원과 협곡의 장관!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셰이블케츄> 단풍 힐링 트레킹

- 1 짙은 프렌치향의 메이플로드 몬트리얼
2 유럽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는 퀘벡
3 빨강머리앤의 샬롯 타운, 할리팩스, 바하버,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크루즈 메이플로드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벨라지오 호텔 숙박

푸른만이 가능합니다 / 추가요금 없습니다!

Table with 4 rows of travel packages: [추천]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3일 \$299, [실속] 4대 캐년 3박4일 \$389, [실속] 미서부 일주 5박6일 \$599, [특별]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6박7일 \$689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크루즈 런칭 기념

멕시코 / 캐리비안 크루즈

동유럽핵심과 지중해크루즈 10일 \$2,999

Table of Princess Cruise specials: PACIFIC COAST WINERY CRUISE 8일 \$799, BAJA MEXICO 5일 \$345, MEXICO RIVIERA CRUISE 8일 \$699

Table of Mexico/Caribbean cruises: 바하멕시코 4일 \$299, 바하멕시코 5일 \$299, 바하마 캐리비안 크루즈 5일/8일 \$799

Fitbit and Mercedes-Benz promotion with image of a car and a Fitbit device.

Grand Canyon 9-day and Sedona 7-day tour advertisement with scenic images.

Autumn special advertisement for a 13-day, 14-night tour with scenic images.

Western tour advertisement for Mexico, Las Vegas, and Sedona with prices.

LA Day Tour advertisement featuring Hollywood and local landmarks.

Eastern tour advertisement for a 5-day, 6-night tour with scenic images.

Canada tour advertisement with a 'Wow' special offer for a 5-day, 5-night tour.

Korea tour advertisement for a 10-day, 10-night tour with various activities.

Europe tour advertisement for a 12-day, 11-night tour with scenic images.

Europe tour advertisement for a 10-day, 9-night tour to Croatia and Bosnia.

Europe tour advertisement for a 10-day, 9-night tour to the UK and France.

Hawaii and Mexico tour advertisements for various island and coastal destinations.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

소돔과 고모라...죄악의 도시 대명사



사해 서남쪽의 소금산 롯의 부인.



소금캐는 순례객들.



엔 보케에 있는 사해.

◆에일랏에서 사해까지

에일랏(Eilat)에서 아라바(Arava) 광야를 쭉 타고 90번 도로로 올라오다 보면 40킬로 지점의 팀나(Timna)와 요바타(Yotvata) 키브츠를 지나 101휴게소에 이른다. 잠깐 이곳에서 쉬었다가 계속 북상하게 되면 파란(Paran)과 에인 아하브(Ein Yahav)를 거쳐 하제바(Hazeva)를 지난다. 기나긴 아랍 광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면 약간 높은 골짜기들이 나타나며 브엘세바(25번 도로)와 사해(90번 도로)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게 된다. 버스 기준으로 거의 2시간 30분 정도를 진행한 셈이다.

이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돌면 광야내부로 들어가며 해발지역으로 오르게 된다.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라바 광야의 일정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해저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계곡을 타고 오르면서 아라드를 지나서 브엘세바로 나가게 된다.

우측으로 돌면 계속 90번 도로를 타고 사해공장 지대에 이르게 된다.

◆죄악의 도시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사해공장이 보이기 바로 직전의 지역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성경의 무대인 소돔과 고모라지역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평야를 선택하였고 점점 남진하여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살던 중 도시의 죄악 때문에 도시가 멸망하게 될 때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지막 의인 10명을 찾아 헤메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무런 도시 전체에 의인 10인이 없었을 까시지만, 그만큼 그 당시의 도시는 패역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다.(창19장)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의 도

죄악의 도시를 의미하는 소돔과 고모라 붉은 띠의 '불과 유향의 심판'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

시를 의미하는 대명사이다.

이사야는 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한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1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는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날에 견디기 어려운 도시로 말씀하시면서 고을들의 회개를 촉구하셨다.

아무리 이 지역을 둘러보아도 그 옛날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왕이 정치할 정도의 상당한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도무지 도시의 잔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곳이 그 옛날에 롯이 선택하였던 비옥한 땅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하고 건조한 땅이다. 사람들은 증거와 표적을 좋아한다.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시도해보려고도 한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유일한 증거

혹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잔해가 사해 밑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도시들이 멸망할 때 사건으로 한번 되돌아 가보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도시의 멸망을 예고하였고 의인 10명이 없어(창18장) 불과 유향으로 멸망을 당하였다.(창19장)

롯과 부인 그리고 두 딸은 소말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 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후 그의 두 딸과의 관계에 의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출현하게 된다.

사해 서남단 약 8km에 이르는 소금 산(암염)은 염해였던 사해의 영향도 있었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소금 바위산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롯의 부인이라는 소금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증거자료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의 소돔산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남쪽 사해공장지대를 지나면(이 공장은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너무 멋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비료, 의약품, 화장품 등 소금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한다) 좌측으로 낮은 산들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의 색깔이 약간 검다.

이것이 바로 바위 소금의 색깔들이다. 그리고 붉은 띠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불과 유향의 심판을 상징하듯이 유향성분을 지닌 붉은 띠인 것이다. 롯의 처라고 쓰여 있는 팻말 앞에서 멈추어 남쪽을 올려다보면 마치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 같은 소금 기둥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 후인들에게 말없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그 기둥이다.

롯의 부인은 오늘도 소금 기둥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말없이 웅변하고 있다. "바라 바라" 의인 10인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말이나. "나는 별 미련이 없었는데 습관적으로 돌아본 것뿐이야" 롯의 부인이야 할 말이 많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은 끝

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소돔산 소금바위에 가면 순례객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며 소금을 캐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왜냐하면 소금을 가져가는 것은 돈을 안 받기 때문이다. 공짜라는 말과 10년을 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말에 너도나도 욕심을 부려 산중턱까지 올라가서 소금을 캐 가지고 온다. 위의 사진이 증명해 주고 있다.

아! 진정 의인이 되기가 어렵단 말인가? 깊은 영성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누가 했던가. 롯의 부인을 보고 깊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금에 현혹되어 버리는 인생들이여 의인은 누구나 될 수도 없고 쉽게 될 수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신다고 하였고(시34:15) 의인은 보효함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시37:25) 또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다.(시92:12)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의(생명)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롬4:25)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과 롯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며 무언가 흔적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은 살아 있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엔 보케(Ein Bokek)에 있는 많은 호텔들

엔(ein)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Ei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곳은 '샘'이라는 뜻이다. 일종의 천연 샘인 것이다. 사실 사람에

게 제일 중요한 것을 들자면 '물'이다. 2016년 하정우 주연의 '타널'이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무너지는 터널에 갇혀서 250리터밖에 되지 않는 생수 두 병을 나눠 마시면서 35일을 버텨 결국 구출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인간의 여러 의지를 나타내며 또한 인간이 만든 부실공사의 추악한 면을 고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역시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감동의 영화인 것 같다. 물의 중요성을 다시 보았다.

이스라엘에서 '엔'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여러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사해 중간 서편 마온 황무지, 십 광야에 있는 '엔 게디'가 있고, 예루살렘 서쪽에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에인 케렘'이 있다.

지명이 말해주듯 엔 보케는 광야에서 물이 샘솟는 곳이다.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이다. 동편은 사해(염해) 서쪽은 광야로 참 척박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별천지다. 물론 이스라엘이 사해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이곳에 있고, 호텔 안에서 사해 물에 뒹뒹 떠다니는 수영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가 되어 지금도 순례객들을 지나가면서, 내국인들은 휴양과 치료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3대 관광지이다.

약명 높은 불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에 생겨난 사해 휴양지에서 찬란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 문화를 엿볼 수 있을까? 인생은 부질없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박문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56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필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aeu.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점진,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p>
<p>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미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지역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인(실내외), 책장,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행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발행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원형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형 실교시디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필요할 경우와 대량 주문을 할 경우에만 특별히 준비해 드립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 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픏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에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 9 1/2 이상, 중(M) 9-6 1/2, 소(S) 6 1/2 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 382-9714, 382-2827
 Fax(213) 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천연양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상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같지만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가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지금 구매하시면! 3병+(1병 Free) \$267+Tax
 절묘의 찬스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이 치료! 해답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헬스케어 칼럼(1)

크리스천이면 되나요?



타나정 디렉터
크리스천 헬스케어

건강보험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째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벌금이 매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무보험자로 남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매년 세금보고 만기일이 다가오면 상담전화도 폭주한다. 하지만 마감 때 서둘러 가입을 한 다해도 빠진 기간에 대한 벌금은 여전히 지불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실시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벌금면제기관을 지정해 놓았다. 그 중 하나가 종교적 면제혜택(Religious Exemption, 501C)이다. 크리스천 헬스케어는 그 중 하나이다.

크리스천 헬스케어의 가입조건은 간단하다. 크리스천이면서 흡연, 음주를 삼가하는자는 모두 가능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떻게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지에 대한 것과 비흡연자임을 증명하는 검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된다. 크리스천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자

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즉 사도신경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된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구원의 주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회 사역자들의 사인을 받기도 했으나 형식적이고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그 과정은 의료비 지원신청 때 교회 정보를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혈액검사는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의 말을 믿고 가입을 승인해 준다. 실제로 흡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취소한 케이스가 두어 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은 정직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안타까운 일이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금연을 하겠다고 하면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유지하다가 의료비 지원케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때와 연관되어 지원이 되지 않은 케이스) 폐와 관련된 질병이라면 지원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즉 의료협동조합은 크리스천들끼리 의료보험비를 절약하고 의료비지원의 폭을 늘려서 크리스천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연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많은 사역자들과 특히 선교사들이 높은 의

료보험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 사역은 시작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의 건강관리 상태는 본국인에 비해 현저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다. 평균적으로 본국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은 높으나,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자기의 건강을 살피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바쁜 생활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병원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21세기는 건강세기라고도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즘처럼 많은 때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기 쉽다.

다시말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어떤 병원을 내원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당황하게 된다. 특히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의 불편함 때문에 병원가는 것을 어려워 한다. 미국 병원의 의사나 그 밖의 담당의료진들이 친절

하고 의료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케이스가 꽤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국인에 비해 이민한인들의 건강 상태는 좋으나, 암 사망률이 2배가 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민한인들은 종교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평균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사전 건강체크에 대한 낙후성으로 인해 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오바마케어는 수입에 따라 납부금이 책정된다. 가정당 수입이 낮다면 보조가 되기도 한다.

아직도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 미주의 건강보험 가입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수입이 일정수준이 넘어 오바마케어가 부담이 되는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 의료조합의 단체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14-738-1234
*웹사이트: www.chman.org

•새라 김 칼럼(1)

미국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시기



새라 김 사모
TVNext 공동대표

이제 미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8일)가 앞으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다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대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시기라 볼 수 있다. 미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인 이유는, 현재 미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 최악의 시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씀 하셨듯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현 오바마 정부(민주당)가 지난 7년 넘게 미국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왔는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선(善)인지 악(惡)인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기준과 원리원칙들에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성경말씀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속한 오바마 정부가 지난 1년 반동안 결정한 것들 가운데

핵심사항(highlights)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내린 정치적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백악관 내 최초 '게이 프로젝트'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매년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곤 했는데, 최초의 게이 프로젝트가 2012년에 백악관에서 있었다. 당시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에게는 큰 뉴스였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http://www.huffingtonpost.com/2012/12/17/white-house-gay-marriage-proposal_n_2317455.html참조)

◆2015년, 미국 전역서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한 도미노 현상(Domino effect)과 파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2015년 8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한 남성 백악관 인사 관리 책임자 임명

라피 프리먼-거스팬(Raffi Freedman-Gurspan,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함)은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성전환자 인권단체)에서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더 미국다워지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하며 그를 백악관 인사과 책임자(outreach and recruitment Director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로 채용했다.

◆2015년 9월, 미국 최초의 'Openly Gay U.S. Army Secretary' 임명

공공연히 자신을 게이이라고 알린 에릭 팬닝(Eric Fanning)을 미국 육군참모총장으로 뽑았다.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는 미군대에 "Don't Ask, Don't Tell" 이라는 법을 만들어 동성애우호운동을 이미 펼치며, 군 전체에 친동성애 정책을 여러모로 강화시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육군총장을 동성애자로 미국역사상 처음 뽑았다.

◆2016년 3월, 라피에게 중책

라피의 직책을 한층 높여서 전적으로 백악관과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락담당자(Liaison) 역할을 맡게 함으로, 앞으로 백악관에 더 많은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정치적 연결을 향상시키고, 미 전역에 그

들의 권리와 인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하도록 힘을 더해줬다.

또한 미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 장관에 친이슬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존 킹(John B. King)을 선임했다. 킹은 취임직후 미국 전역 학교 안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무슬림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5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및 미연방 교육청에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들뿐 아니라, 크리스천학교들까지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을 혼용하라'는 법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All Gender Bathroom Bill 화장실법안"이란 0.3%도 안되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미국 내 99.7%의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남여 혼용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2016년 5월 23일, 백악관 신앙자문위원회에 성전환자 임명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백악관의 '신앙 자문 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aith)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바바라 새틴(82•Barbara Satin•본명 David Satin)를 임명했다. 그는 아이 셋의 아버지며 가톨릭 신자였지만 60세 좀 넘어서 여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지금

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연합 그리스도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교파단체(denomination's Executive Council) 신앙이 사회를 말아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겨우 지난 1년 반동안 그야말로 엄청난고, 우리 자녀들과 미래에 참으로 사악한 법안과 정치적 결정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이번 대선 때 꼭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잘 분별해 투표해야 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혼을 무너뜨리며(고후 10:4)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딤후 6:3~12, 20~2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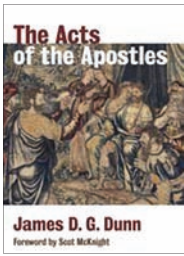


신간 추천

Acts of the Apostles

Dunn, James D.G | Eerdmans Publish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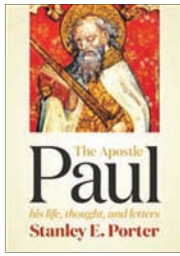
저자 제임스 던 (1939-)은 영국 더럼대학교 신약학 은 퇴교수이다. 던 교수의 사도행전은 특히 설교자를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신학, 당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역사 기술'에 주목하면서 본문의 주석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사도행전 각 장과 구절에서 설교자나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잘 준비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postle Paul

Porter, Stanley E. | Eerdmans Publish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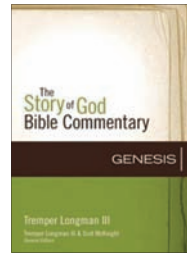
이 책은 사도바울 서신에 나타난 배경, 당시 상황과 본문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저자는 역사비평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동안 사도바울과 그의 서신들에 대한 논점들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면서 신중하고 절도 있는 판단을 제시한다. 1부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생애와 사상)에 대해, 제2부에서는 그의 서신들을 갈라디아서부터 디모서까지 담고 있다.



Genesis

Longman, Tremper III | Zondervan P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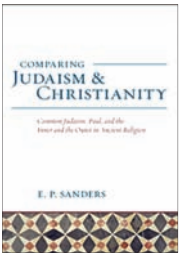
Zondervan 출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 성경주석' 총서(SGBC)는 트렘퍼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가 구약 편집 책임자이고, 신약 편집은 스캇 맥 나이트(Scot McKnight)가 맡고 있다.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출판되고 있는 이 주석 총서에서 금년(2016년)에 트렘퍼 롱맨 3세의 '창세기' 주석이 출간됐다. 트렘퍼 롱맨 3세는 미국 복음주의 구약학자이다.



Comparing Judaism & Christianity

Sanders, E. P. | Fortress Press

샌더스 교수는 지난 세기 후반부터 팔레스틴 유대교와 신약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학자이다. 주로 미국과 영국의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올해 나온 이 책은 그동안 샌더스의 전공분야 연구의 요약이며, 특히 고대 종교세계에서 일반적인 유대교와 바울 사도의 유대교적 색채를 띤 신학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교회나 기독교는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교회나 기독교는 어떻게 보이고 이해될까? 필자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주변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간히 들어볼 때, '종교 장사', '종교 사업'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매우 주관적 입장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사람들의 불안감, 근심, 어려움, 고통 등을 이용하는 '심리적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을 상담해 봐도 대다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해서이지, 하나님을 따

르기 위해 교회를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본질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글을 아직 접한 적이 없다. 본서를 통해 하우어워스에 대해 소개를 받은 셈이다. 그리고 본서가 하우어워스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편안히 읽으려다 자세를 고치고, 허리를 편 채로 집중해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소리였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비아 마크 코피 | 144쪽

본서는 하우어워스의 사상을 5가지 주제로 나눠 구성한 책이다. 이 사상들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교회의 가르침 안에 스

며들어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왜 위험하고, 이러한 사상들이 현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어떤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경과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다섯 가지 주제 모두를 61쪽에 압축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본서는 하우어워스의 신학에 대해 '내러티브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지식에서 멈춰선 신학, 지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신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신학은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

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신학은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도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우어워스는 그 신학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에 물들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하우어워스가 오랜 시간동안 수련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나며, 매우 진실되고 솔직하며,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적 외과의사이기 때문이다. 강도현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마침내 드러난 예수님 얼굴보다 중요한 것”

리메이크 <벤허> ... ‘벤허’는 어떤 왕자인가?

<벤허> 2016년 리메이크 버전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대체로 1959년 판과 달리 예수님 얼굴이 속사원히 등장했다는 점을 꼽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보다는 자막 속에서 벤허를 부르는 호칭 세 글자, 즉 ‘왕자님’이었다. 아니 거슬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과연 1959년 버전에서도 벤허를 왕자님이라고 불렀던가?’라는 생각에, 관람 후에도 그 호칭이 계속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왜냐하면 당대 로열 패밀리라고 하면 두 종류 밖에 없었는데, 쓸만한 가문은 다 선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화의 세세한 리뷰보다는 벤허와 같은 당대 유대인 특권층의 형성 과정을 약술하였다.

◆ 헬라화

유럽화하다(Europeanize), 미국화하다(Americanize), 일본화하다(japanize)... 라고 쓸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미가 있다. ‘-ize’인데, 이 접미사의 유래는 희랍어 -ίζει이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헬라화’를 당하게 된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의해 이뤄졌다.

◆ 1단계 헬라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지배자는 셀류코스였다. 알렉산더 생전 네 명의 장수 중 하나인 프톨레미의 부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프톨레미의 후광으로 바벨론과 코일레 시리아 북부를 차지함으로써 유대인 통치를 시작했다. 일부 유대인은 셀류코스 왕조를 받쳐 맞았다. 그 이유는 통치 초기에 토라를 유대인의 법으로 인정하고 자치권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세금을 3년이나 유예해 주었고 3년이 지나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3분의 1을 감면해 주되,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분유기가 끼인 것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들어서면서였다. 스스로를 ‘신의 현현(에피파네스)’이라고 칭칭했던 그는 자신의 영토 내 헬라화에 있어 제일 큰 방해 요인인 유대교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헬라화’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화’로 여겨졌는데, 이 문화화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 성

경 필사본들은 불태워졌으며,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율법사는 맞아죽는 일도 생겼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유대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세계와의 교역을 적극 시도하는가 하면 헬라의 오락도 기꺼이 즐기는 친(親)헬라파 세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헬라적인 것을 전면 타파하고 헬라 통치자들과의 타협을 철저히 거부하는 세력이었다. 이런 와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항쟁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 항쟁을 바로 마카비 항쟁이라 부른다.

안티오쿠스가 보낸 사절단이 당도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바칠 것을 명령했는데, 어떤 유대인이 제사를 거행하자 하스모니아 가문 중 일원인 맛다디아가 그 유대인을 제단 위에서 그대로 칼로 죽이고 사절단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장본인 맛다디아는 다음해에 죽었지만, 그 군대는 해산되지 않고 그의 아들 중 가장 용맹스러웠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지휘관이 되고 유대교 경건주의자(하시딤)들도 합류하면서, 단순한 저항을 넘어 안티오쿠스 군대에 의외의 승전을 거두어 나갔다. 거듭되는 승전으로 기세를 얻은 유대인이 아라크 요새만 빼고 예루살렘을 수복해낸 것이다.

이 마카비 항쟁이 발발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의 일이며, 예루살렘을 수복하여 성전 정화를 한 해는 164년, 그러니까 마카비가 힘겹게 싸운지 3년 뒤에 이룬 성과였다.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으로 그의 별명이고, 마카비의 본명은 바로 유다였다. 그런데 유다는 항쟁이 일어난지 7년만에 벳 호른 전투에서 전사한다. 그리고 마카비 유다의 뒤를 이은 것이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다. 그는 셋째 형 유다에 못지않은 유능하고 현명한 지휘관이 되었다.

요나단은 안티오쿠스 가문(셀류코스 왕조)이 내부 정쟁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라이벌 관계에 있는 측과 동시에 조약을 맺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여 양쪽 사이에서 줄을 탔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경쟁적으로 유대에 화친을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 정경에 있는 시



리아 주둔군을 자진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로부터 대사제직을 부여받는다 하면, 시리아 지방장관으로까지 공식 임명을 받는다. 이것이 하스모니아 가문이 대사제직을 이어받게 된 유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리아 권력 내부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던 요나단은 안티오쿠스 6세의 섭정을 하던 디오도로스 트리폰에게 살해당한다. 그러자 맛다디아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시몬이 요나단의 뒤를 이어 받았다.

◆ 2단계 헬라화

위와 같이 1단계 헬라화가 마치고 2단계 헬라화가 시작되는 것은 카르타고에서 승리하여 패권을 거머쥔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하스모니아 왕조는 안티고누스를 마지막으로 헤롯이라는 인물에게 넘어간다. 당시 로마통이었던 헤롯은 로마 사람들의 지지 속에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여 마지막 왕 안티고누스를 처형하는 한편, 왕족의 정통성을 입기 위하여 공주 마리암네와 혼인을 하는 이중성을 구사했다.

헤롯은 첫 부인 도리스에게서 난 안티파테르, 마리암네 1세에게서 난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도볼로스 등 자식들을 모두 모반 혐의로 처형할 정도였는데, 성경에서는 2살 이하 아기를 모두 죽였다던 그의 영아 살해 이야기로 그 잔인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아 탄생 담론이 아

니라 당시 헬라화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래서인지 이 2단계 헬라화 과정에 가장 많은 메시아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대열의 하나로 끼어 우리 곁에 오셨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켈롯(열심당), 시카리(자객)와 같은 정파도 양생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1960년대 <벤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다. 거의 벤허의 사적 복수 이야기로 기억된다. 반면 2016년 <벤허>에는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량의 플롯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나 가르침이 직접 기록으로 나타난다 해서 구속사가 더 잘 묘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리메이크 작품에서 입증됐다. 그것은 마치 맛다디아 가문의 왕자들이 성경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그들의 얼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 두 종류의 왕자들

한날 유대인이 ‘왕자’라고 불리게 될만한 경로와 배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가 전부일텐데, 과연 유다 벤

허는 어느 줄기의 왕자인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동시대에 두 종류의 왕자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하나는 맛다디아의 아들들과 같은 왕자다. 다른 하나는 헤롯 또는 헤롯의 아들들과 같은 왕자다.

먼저 후자에 대해서는 비록 압제자였지만 로마의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말을 빌리면 더할 나위 없는 설명이 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 데 빚낸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은 헤롯 가문에 비하면 전자인 맛다디아 가문은 그 모든 아들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입힌 가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맛다디아 가문은 헤롯 가문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기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격 사유는 바로 ‘예언 속의 왕가(the Royal Family of Prophecy)’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맛다디아 가문의 경우 당대 정치·종교 지도자를 막론하고 유대인 누구도 다음 말에 이의 없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

1960년대 <벤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다. 거의 벤허의 사적 복수 이야기로 기억된다.

반면 2016년 <벤허>에는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량의 플롯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나 가르침이 직접 기록으로 나타난다 해서 구속사가 더 잘 묘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리메이크 작품에서 입증됐다.

그것은 마치 맛다디아 가문의 왕자들이 성경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그들의 얼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각각 얼굴을 가려 가면서 지금도 전개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영진 교수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성교회 (\$20/권당)
-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신앙의 왜곡과 이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 소강석 지음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p>사탄의 권력배상 264면 / 10,000원</p>	<p>레위기야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p>
<p>거룩의 재발견 239면 / 11,000원</p>	<p>생명의 언어 317면 / 13,000원</p>

◆ 김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김란출판사 ◆ 홈페이지 : www.kurm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South Bay Church Hosts Revival Event With Hopes to 'Bring the Power of the Gospel Message'

BY RACHAEL LEE

A revival event featuring Pastor Stephen Chong of Revival Church took place from September 16 to 17 in the South Bay region, hosted by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with about 170 people the first night, and about 140 the second night, from at least seven different churches.

Chong, who was the main speaker for both nights, encouraged the attendees to "have a culture of revival."

"Revival is not just a night or two," said Chong. "We want revival that's sustained. And that is God's will — to move us from glory to glory."

During the second night of the event, he spoke from Matthew 21:12-16, a passage in which Jesus rebukes peopl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in the temple. He said there are two aspects the church must have in order to have revival: praise and prayer.

"You want your church to be alive? Give the Lord all our praise," Chong said. He added, "All movements of revival start with prayer — revival always comes as an answer to prayer."

The revival nights also featured a testimony from Jun Lee, a staff of SOON Movement (formerly Korea Campus Crusade for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hosted its first revival event for English-speaking congregants from September 16 to 17 under the theme, 'Live in Love.'

Christ), and worship led by Undignified Tour, a worship ministry of SOON Movement. Lee shared testimonies from his journey after being diagnosed with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d the miracles of healing that he experienced as he felt compelled to pray for others.

"Today, I feel like I have stronger joy than yesterday," Lee said. "Ever since I was diagnosed that joy has been growing."

This is the first revival event hosted by the English ministry (EM) of Good Community Church, and was held under the theme, "Live in Love," based on 1 John 4:16.

"Our goal was not to produce a revival event, but to bring the power of the gospel message to the people of the South Bay," said Pastor Sang Boo of Good Community Church. "Revival is not about an event, but it is

about life. And life is lived to its fullest when we live in love — to be loved by God and to be in love with God."

"I hope and pray that people received the power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so that they might be strengthened in faith, encouraged in hope, and healed in love," Boo said, adding that the planning team for this year's retreat hope to make the event a regular occurrence.

Social Shifts, Generational Changes Contribute to Growth of Religious 'Nones'

*Pew Research
Center details
results of 'Religious
Landscape Study'*

BY CHRISTINE KIM

The number of Americans who do not ascribe to a religious group is growing, which may be the result of social shifts and generational change, according to a survey by Pew Research.

According to nationwide surveys conducted in the 1970s and 80s, Pew reports that less than 10 percent of U.S. adults reported to not identify with any religion. However, that number has increased to 23 percent who report identifying themselves as atheists, agnostics, or "nothing in particular."

While it may seem that the U.S. is becoming less religious, a Pew survey suggests that religious 'nones' are more likely than in the past to identify themselves as such.

The survey also cites generational change as on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growing number of Americans with low levels of religious commitment.

According to Pew's 2014 Religious Landscape Study, young people who are not religious appear to be more comfortable than their older counterparts who are equally not religious to identify as "nones."

Millennials with a low level of religious commitment (79 percent) identify themselves as atheist, agnostic, or "nothing in particular" in greater numbers than do members of the "Silent or older" generation who were born before 1946 (54 percent). According to the study, 45 percent of those from the "Silent or older" generation who claim to have a low level of religious commitment claim a religion.

The same contrast was seen between highly religious Millennials and the highly religious group of older generations, in that highly religious Millennials (8 percent) were more likely to identify as religiously unaffiliated than their older counterparts from the Silent generation (1 percent).

The survey also points to generational replacement as a factor, as Millennials are less religious than their older counterparts and constitute a growing sector of the population as they replace older Americans.

ISAAC to Celebrate Decade of Efforts to Provide 'Third Space' of Cultivating Asian American Leaders

BY RACHAEL LEE

ISAAC — formerly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and currently the 'Innovative Space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 will be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in October with a 'Gala ArtFest,' featuring singer-songwriters Soo Kim and Priska, and violinist Jing Wang.

Working under the banner, "Bridging the academy, church, community," ISAAC's leaders often call the organization a 'third space' — a space in which Asian American Christians could learn about their ethnic and spiritual identity outside of the church and the classroom, but enmeshing both academic and

spiritual aspects.

To that end, the non-profit has hosted events such as symposiums and forums in which attendees have discussed various themes, including race and gender, the religious 'dones' and 'nones,' and Asian American history, among others. More casual gatherings have also been hosted, such as the 'Together We Cook and View'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home of a Korean American pastor with some 20 ministry leaders from Asi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ISAAC has also hosted summer internships since 2015, one of which included a bilateral internship with Asian American in-

terns placed in African American churches. The internships are designed to give college-aged young adults a glimpse of full-time vocational ministry as they serve in the assigned or chosen church, and meet with other interns and ISAAC mentors on a weekly basis.

Most recently, ISAAC launched an East Coast branch with Rev. Dr. Milton as the 'ISAAC East' director. The organization will also be hosting its first forum in northern California on the topic of 'The Future of the ANA (Asian North American) Church' from September 26 to 27.

"In celebrating ISAAC's 10th year anniversary, we thank God for all of you who have so faithfully showed up to ISAAC's programs. Your

presence and voice have sustained us for one decade," said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ISAAC. "The night will be a memorable moment for all of us at one of the most sacred spaces — The Church of Our Saviour, SGV. We are grateful for their generosity of sharing their beautiful church with ISAAC."

The Gala ArtFest will be taking place on October 15 at 6 PM at The Church of Our Savior in San Gabriel, and will feature pastor and program manager for the USC Cecil Murray 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 Rev. Dr. Najuma Smith Pollard as the keynote speaker. For more information, visit: isaacgala.brownpapertickets.com.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to Complete 34th Project of Sending Wheelchairs and Medical Equipment Overseas

BY JUNHYEONG KIM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a Korean ministry that has been giving wheelchairs and medical equipment to various countries since September of 1999, will be carrying out its 'Sending Wheelchairs of Love' project for the 34th time, sharing love with communities in Burundi and China.

For the past 17 years, the ministry has donated 10,553 wheelchairs and 43,290 other medical equipment. Over 34 projects, the ministry has offered help by sending a total of 53,843 medical equipment to over 50,000 people with disabili-

ties in 12 different countries.

"This kind of amazing result was made possible first of all by God's grace, and second by the help of the churches,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said Moses Park, the president of Shalom. "With \$200, we are able to purchase one wheelchair, and two sets of crutch-like medical equipment, allowing us to help three people."

This year,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will be sending a total of 3,542 equipment, including 642 wheelchairs, 550 aluminum crutches, 100 medical walkers, 1,500 canes, and others.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held a ceremony on September 20 in celebration of the new wheelchairs and equipment they will be sending later this month.

Majority of Americans Identify as Christian, but Minority of 'Practicing' Christians

A new Barna Group research released on September 15 found that while a majority of Christians in America identify as Christians, only a minority are "practicing Christians" who attend church at least once a month.

As many as 73 percent of Americans say they are Christians, 20 percent identify as atheists or agnostics, 6 percent adhere to other faiths such as Islam, Buddhism,

Judaism, Hinduism, and 1 percent are not sure.

The research found that those Americans who identify as Christians (73 percent) also say that faith was crucial in their lives.

However, when they are asked about how regularly they attended church, a much smaller proportion said they visited church often.

Only about 31 percent of the Americans said they attended

church at least once a month, which is one of the criteria used by Barna Group to classify people as "practicing Christians."

The study also put about 48 percent of Americans under the category of "post-Christians." Post-Christians were defined as people who do not get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Bible reading, prayer, and church attendance, and have disbelief in God or identify as athe-

ists or agnostics. Individuals were called "post-Christian" when at least 60 percent of their responses were positive on the scale testing lack of involvement in church practices and feelings of disbelief.

The study also found that Christians are more generous than secular Americans. As many as 96 percent of the practicing Christians donated to churches and nonprofits, but only 60 percent of

the atheists and agnostics did so. An absolute majority (94 percent) of the practicing Christians donated to churches.

A majority of Americans (75 percent) said they prayed to God over the last week, and about 35 percent went to church in the last seven days. A significant minority of Americans (34 percent) claim to have read the Bible in their spare time at home over the last week.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Christian Bakers Continue to Appeal Case: 'Has Oregon Commandeered Individuals' Liberty?'

Aaron and Melissa Klein, the Christian owners of a bakery in Oregon, continue to stand firm in their position that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were violated when they were fined \$135,000 for declining to make a cake for a same-sex wedding ceremony in 2013.

The bakery owners paid the fine last year in December and also appealed to the Oregon Court of Appeals in April claiming that the government had violated their religious freedom by imposing hefty fines for refusing to bake a wedding cake for a same-sex couple, Rachel and Laurel Bowman-Cryer.

The state lawyers filed a brief justifying the charges against the Kleins, to which the bakery couple replied this month. State Attorney General Ellen Rosenblum and Solicitor General Benjamin Gutman said that the fines were imposed for the couples' alleged discriminatory conduct and were not intended to deny the couple's religious beliefs, and that the colossal amount of fines was appropriate because the bakery's refusal to serve the couple had caused the Cryers deep emotional distress.

"Everybody is entitled to their own beliefs, but that doesn't mean that folks have the right to discriminate." Labor Commissioner Brad Avakian was quoted as saying by The Oregonian in 2013. He then adde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want to close down businesses but wanted to rehabilitate them.

"For those who do violate the law, we want them to learn from that experience and have a good, successful business in Oregon," he had said.

The Kleins' brief says that Avakian levied the fines on them without due process, and violated their religious freedom right. They maintain that the government cannot compel artists to devote their art to causes which violate their conscience.

The couple had served the women before, but they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event which they said violated their deeply-held religious convictions.

"It wasn't them as a couple. We served them in the past. It had to do with their event. We just couldn't partake in that particular event," Melissa told The Daily Signal last year.

The Kleins said they believe that

marriage is a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that they had also baked cakes for couples with same-sex attractions, but baking a cake for their wedding would be akin to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is case is, first and foremost, about whether Oregon has commandeered individuals' liberty to compel them -- upon pain of crippling financial penalties -- to facilitate the multitude of events in which 'persons' protected by (discrimination law) might participate," the brief asks. "Such events might be weddings, as here, or religious rituals, sex-segregated club initiations, or abortions."

"So the court must determine: Has Oregon, for example, compelled Catholics to sculpt totems for Wiccan rituals? Feminists to photograph fraternity initiations? Pro-life filmmakers to video abortions?" the brief asks. "It has not, and that ends the case."

The fine imposed on the Kleins, which also included a high interest per day for delay in payment, amounts to \$136,927.07, is as yet in an escrow account and will be released to either of the parties after the case is concluded.

Canadian Christian Kevin Garratt Released from Chinese Prison

BY RACHAEL LEE

A Canadian man who was arrested and jailed two years ago in China on charges of spying and stealing intelligence was released on September 13.

According to a statement released by Garratt's family, he was released and deported after a court hearing, the details of which are unclear. He arrived in Canada on September 15.

"The Garratt family thanks everyone for their thoughts and prayers, and also thanks the many individuals who

worked to secure Kevin's release," the family stated. "Please respect the family's privacy in this time of transition. We will be releasing more information in the coming weeks."

Garratt and his wife, Julia, were known to be devout Christians and to have run a cafe in Dandong to send food to North Korea.

"We're trying to reach North Korea with God, with Jesus, and with practical assistance," Kevin Garratt said in a sermon that was previously posted online but has since been taken down,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he couple, who had lived in China since 1984, was arrested in August of 2014, but Julia Garratt was released on bail in February of 2015. The foreign minister of Canada, Stephane Dion, denied that Canada had made concessions to secure the release of Garratt, according to a Reuters report.

"We are delighted that Kevin Garratt has returned safely to Canada and is with his family once more," said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South Sudan Becomes Fourth Country to Cross 1 Million Refugee Mark

Over one million South Sudanese refugees have fled the country to avoid being caught up in the violence raging in the country since the civil war started in 2013,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aid in a statement on September 16.

Leo Dobbs, UNHCR spokesperson, reported at a press briefing in Geneva that a majority of refugees fleeing the country are women and children.

"They include survivors of violent attacks, sexual assault, children that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or travelled alone," he said.

South Sudan now becomes the fourth nation in the world to have over one million refugees leave the country, apart from Syria, Afghanistan and Somalia.

About 1.61 million people are already displaced inside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UN.

"The fighting has shattered hopes for a real breakthrough and triggered new waves of displacement and suffering," Dobbs said, adding that security, logistics, and funding constraints make it hard for them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people.

Uganda is hosting the largest num-



Refugees in Jamam camp in South Sudan stand in line for water. (Photo: Robert Stansfiel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CC)

ber of South Sudanese refugees, about 370,000, among which some 20,000 arrived in the country last week. Other countries sheltering people fleeing the country include Kenya, Congo, Sudan,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Ethiopia.

President Salva Kiir's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SPLA) and rebels under former deputy Riek

Machar have carried out war crimes against civilians on a massive scale, which include killings, rapes, abductions, and burning children and disabled people alive.

Many attempts made to secure peace between forces loyal to Machar and Kiir have failed. The warring sides had declared ceasefire before battle started again in July.

Hungary Creates New Department to Assist Persecuted Christians

BY CHRISTINE KIM

Hungary announced in early September the creation of a new government department to help persecute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Protecting Christi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s an important criteria for the Government and the goal is to help families living in these communities," Minister of National Economy Mihály Varga said, according to Hungarian news agency MTI.

The creation of the new office follows Hungarian Prime Minister Victor Orbán's meeting in Rome in August with Pope Francis and other church leaders from the Middle East.

Eduard von Habsburg, the Hungarian ambassador to the Holy See, said that the new department was conceived out "of several years of the Hungarian government quietly helping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by securing visas for persecuted Christians and other persecuted minorities, the National Catholic Register reports.

The government also helped to build a Christian school in Erbil, Iraq. Habsburg said the government "follows the philosophy that the best way to give them a chance is to help them to stay at home, in their countries and to find help there... to help them have the chance of receiving help on the spot," according to Christian Times.

According to Crux, a Catholic news station, Habsburg hopes that other European nations will follow in Hungary's example.

"Hungary considers itself Christian, and is interested in the situation of Christians all around the world. It wants to extend a helping hand," Habsburg said.

The department will be under the

Hungarian Ministry for Human Capacities and will be headed by former deputy ambassador to Italy Tamás Török.

"Today, Christianity has become the most persecuted religion, where out of five people killed [for] religious reasons, four of them are Christians," Minister for Human Capacities Zoltan Balog said, according to the Catholic News Agency (CNA). "In 81 countries around the world, Christians are persecuted, and 200 million Christians live in areas where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Millions of Christian lives are threatened by followers of radical religious ideologies."

Already, \$1.13 billion USD has been given to the department of the \$3.35 billion that will be allocated to gather and analyze information on persecuted Christians as well as fund government officials' visits to areas where Christians are being persecute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